

“몰빵했다가지옥 맛봤다”... 암호화폐 절규하는 2030

“넣으면 돈 복사”라는 얘기에 투자 시작 수천만 원씩 투자했지만, 대부분 잃기도 “투자라기보다 단기 급등락 의존” 의견도

올들어 급등했던 암호화폐가 이른바 ‘검은 수요일’이라 불리는 지난 19일 급락하면서, 큰돈을 잃었다는 20~30대 청년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뉴스 취재에 응한 한 청년은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분위기만 잘 타면 큰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강행했다 수천만원을 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3000만원을 잃었다는 한모(34)씨는 29일 통화에서 “지금은 어플도 다 지웠다. 돈도 없고 아예 청산했

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한씨는 “하다, 안 하다 하면서 사고 팔고 했다”며 “다시 시작한 건 이번에 코인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라고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을 전했다. 신모(29)씨도 암호화폐 붐이 일었던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투자에 나섰다. “넣으면 돈 복사를 봤다. 그는 “넣으면 돈 복사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주위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작했다”면서 “원래는 적금만 들었는데 금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수익 생각하다 손

을 대게 됐다”고 전했다. 10만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신씨는 “3월 말 정도에 돈을 넣자마자 12%가 오르기에 100만원을 넣었다”면서 “500만원을 투자해 200만원을 벌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츰차츰 투자금을 늘리다 보니 신씨가 암호화폐에 투자한 총금액은 2200만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신씨는 투자금 중 560만원 정도를 잃었다고 한다. 신씨는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지금 남은 게 1700만원 정도”라면서 “코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억6000만원, 2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버틴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치가 더 하락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3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수익률이 높고, 주식처럼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더 쉽게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씨는 “주식은 코인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주식

은 시장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는데 코인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분위기만 잘 타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며 “분위기를 타 약간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는 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이런 속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33)씨는 “코인은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거의 모든 코인의 향방을 주도하는 추세”라면서 “투자의 의미보다는 단기적인 급등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300만원 정도를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이씨는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낸 후 모두 팔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했다는 정모(33)씨는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많길래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성과 없이도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신기했다”면서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하루종일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삶이 피폐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DDP로 행진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정부의 P4C 규탄 및 석탄발전 철해를 촉구하며 P4C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DDP로 행진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11월까지 드론 등 첨단장비 이용 무단점유지 관리·조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5월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결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의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취약계층 마스크 빼돌린 70대 통장, 2심도 벌금형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린 70대 통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

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한 지자체 마을 통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보건용 마스크 570개를 업무상 보관하다 332개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자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들 19

명에게 무상 배포(1인당 30개)하라고 A씨에게 마스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과 6월 사이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차장에게 ‘XX 새끼들아. 청소 좀 해라. 너희가 인간이냐. 월급을 받으면 할 일은 해야지’라고 소리쳐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왜 이리 시끄러워” 흥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50대 검거

아파트 에어콘 설치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이 화가 난 50대가 이웃집에 흥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낮 12시 40분께 문수동 한 아파트 출입문에서 안쪽을 향해 문을 열며 소리 치며 길이 35cm가량의 날카로운 흥

기로 현관 공동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찍은 A(54) 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또 경비실을 찾아가 “누구 마음대로 시끄럽게 공사를 하나,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는 등 언성을 높이며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과 음주 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